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짐

성경: 사 37:31, 마 6:5-6, 14:22-23, 시 42:7, 아 4:12

- I.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 마 6:5-6.
- A. 우리는 우리의 골방, 곧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인 왕국 백성은 반드시 아버지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 살며, 이러한 그분의 임재를 주의해야 한다.
- B.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비워지고 겸손해진 영 안에서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해야 한다.
- C.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락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과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이는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 D.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밀한 생명의 성장,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 E.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F.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 마 6:6.
- G. 언제든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
- H. 우리의 인간 생명은 과시하고 전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위선자는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진 사람이다.
- I.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II. 우리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본에서 배워야 한다 — 마 14:23, 비교 눅 6:12.

- A.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 마 14:14-23.
1.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을 떠나게 하셨다 — 마 14:22-23.
 2.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외딴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떠나 산에서 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홀로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서였다.
- B.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없다.
 2.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6:6).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끼게 된다.
 3.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리와 땅에 속한 것들에서 분별되어,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III. 시편 42편 7절은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라고 말한다.

- A. 다른 이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에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결코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 B.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생활에 피상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다. 오직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왕국 생활은 깊이 있는 생활, 곧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다 — 사 37:31, 비교 행 6:7, 12:24, 19:20.
- C. 한 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마 13:23),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 있는 식물로서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전 3:6, 9, 골 2:6-7).
1.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게 된다 — 골 2:19.
 2. 우리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특별히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 D.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마 13:4-8, 18-23.
1. 주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다른 상태 중 하나인 흙이 얇게 덮인 바위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표면에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바위들이 있는 것이다. 씨가 이런 종류

의 땅에 떨어질 때 그 씨는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돌아 내리쬐자마자 이 싹은 뿌리가 없어 말라 버린다 — 마 13:5-6.

2. 뿌리는 토양 아래서 일어나는 성장이고, 잎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지만 잎은 드러난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지만 은밀하고 감추어진 생활은 적다는 것이다.
3.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바란다.
4.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물이나 감추어진 생활이나 감추어진 체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체험들은 반드시 덮인 채로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비교 사 39:2-8.

IV. 깊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가 4장 12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말한다.

- A.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는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 B.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 C. 오늘날의 믿는 이들이 조금 더 잠그고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D.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감추어진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